

# 리아 “전북 익산 이주 ... 닭치고 음악 할거예요”

### 닭농장 분양받아 유정란 생산 ... 다음달 익산에서 콘서트 “지역 뮤지션과 커뮤니티 만들어 투어도 하고 싶어요”

가수 리아(본명 김재원·44·사진)가 전북 익산에 둠지를 틀었다. 전세로 아파트를 마련해 이사한 뒤 지난달 26일 전입 신고를 마쳤다. 유행처럼 제주로 이주한 문화예술인은 많지만, 32대째 서울에 산다는 그가 아무 연구도 없는 익산으로 간 이유는 뭘까.

최근 전화로 만난 리아는 “예전에 남동생이 대학 시절을 이 지역에서 보내 지인들이 있을 정도로 체계도 익숙한 곳”이라며 “여기서 닭치고 음악 해요”라고 유쾌하게 웃었다.

“닭치고 음악 한다”는 뜻이나고 문자 ‘닭이’ (닭기)라며 연음으로 고쳐 말했다.

“인근에 방목으로 닭을 길러 유정란을 생산하는 농장이 몇 군데 있어 일부분을 작게 분양받아 보려 해요. 토종닭이 지네를 잡아먹으려면 대나무 숲이 필요한데, 야생동물이 알을 훔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유정란을 생산하면 베이커리를 배워 빵을 만들어 보려고요. 어쩌면 빵집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하하.”

생기 넘치는 톤으로 쉽게 말하던 그는 “마흔살이 넘으면 조용한 시골에서 살 아는지 생각했다”며 “서울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남동생이 어머니와 합하면서 처음으로 독립이란 걸 하게 됐다. KTX를 타면 50분 거리여서 서울과도 가깝다”고 설명을 더했다.

리아의 이주 소식에 그곳에 사는 지인은 신고식 같은 공연을 제안했다.

그는 다음 달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익산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바람이 분다’란 타이틀로 공연을 펼친다. 자신의 바람 같은 인생 이야기와 노래를 관객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바람을 담은 무대다.

1997년 1집 타이틀곡 ‘개성’으로 데뷔한 지 올해로 22년. 리아는 록과 블루스, 발라드는 넘나드는 음악성과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1998년 2집의 ‘고정관념’과 3집의 ‘눈물’ 등을 히트시키며 디바로 떠올랐다.

그러나 4집과 5집을 내는 과정에서 소속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2008년 6집의 ‘힘을 내시다’를 내고는 음반 활동 주기가 길어졌다. 이후 그는 중부대학교 실용음악과 겸임교수로 강단에 서고, 바른음원협동조합 등 음악 단체 일을 하면서 드라마 OST를 다수 불렀다. 데뷔 20주년이던 2017년 싱글 ‘홍역’을 내기도 했다.

이번 공연에는 시나위의 신대철, 힙합 1세대 뮤지션 MC메타, 펑크록 밴드 크라잉넛 등이 출연하고 작곡가 윤일상이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리아는 자리가 잡히면 익산을 중심으로 인근 실력 있는 밴드 뮤지션들과 커뮤니티를 만들고, 함께 여러 도시를 다니는 투어 문화를 만들어 볼 생각이다. 이런 구상을 한 것은 여러 지역 대회 심사를 하고 공연 차 방문하면서 좋은 뮤지션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고교 시절 때로 밴드 문화에 대한 향수가 떠올라서다.

“예전엔 부산, 인천 어떤 밴드가 유명하다고 소문날 정도로 밴드 문화가 있었어요. 저도 고교 때 메탈 프로젝트 밴드 동호회가 몇달에 한 번씩 연합 공연을 하면 교복 입고 가서 코러스를 했죠. 지금은 그 문화가 다 없어졌어요.”

그는 “1년 정도 닭을 치면서 이 지역 음악 하는 분들을 찾아보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옛날처럼 함께 부산, 인천 가서 공연하면 좋을 것 같다”며 “서울의 인디 밴드도 흥대 클럽 외에는 공연할 데가 많지 않다. 신대철 선배와 얘기하며 여러



도시를 다니는 연합 공연을 해보자고 했다. 낯서 따뜻해지면 야외 공연을 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문화예술 커뮤니티에도 관심을 뒤시킨 안도현, 소설가 황석영·정도상 등 인근 지역에 살거나 집필 차 드나드는 문인들과 교류하며 조건도 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 친구분인 황석영 선생님은 소설을 쓰러 내려오셨다고 해서 한번 인사를 드렸어요. 아직 빈 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인 얘기를 못 드렸지

만, 선생님들께 조건을 구할 생각이예요.”

그는 정착 과정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수도 있지만, 새 터전에서 뭔가를 시작하는 설렘을 오랜만에 느낀다고 했다.

“강아지 한 마리와 내려와 지금은 완전 벅스예요. 하하.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대학 강의 보다 어린 친구들 레슨을 하면서 제 싱글 작업도 할 겁니다. 지금으로선 여러 구상이 제 포부지만 의욕을 갖고 해보려고요.” /연합뉴스

# 광주MBC ‘난장’ 해외 진출 추진

### 메이드림미디어와 업무 제휴 해외 배급·콘텐츠 영역 확대

광주MBC 음악 전문 프로그램 ‘난장’이 해외 진출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광주MBC(사장 송일준)와 ㈜메이드림미디어(대표 한필웅)은 최근 프로그램 유통과 다양한 콘텐츠 기획을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두 대표는 ‘난장’을 해외에 배급해 콘텐츠의 시장 영역을 넓히고, 페스티벌·축제 등 다양한 공연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07년 첫 방송한 ‘난장’은 국카스텐·안녕바다·검정치마·멜로망스·볼빨간사춘기 등 실력과 뮤지션들의 무대를 선보여 온 음악프로그램으로, ‘넥스트트리뷰트’, ‘산울림 한정공연’, ‘20년 만의 백두산 컴백무대’ 등 대중음악계에 의미 있는 공연을 열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또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 수



광주MBC 송일준(오른쪽) 사장과 ㈜메이드림미디어 한필웅 대표

수콘텐츠로 선정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텔레비전 포럼&마켓(ATF)에 참여했다.

한편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악을 국내에 소개해온 공연기획 전문기업 메이드림미디어는 브리츠스 갓 탤런트의 우승자 폴 포츠의 아시아 프로모션을 맡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극한직업’ 하루 100만명 봤다...누적 200만명 돌파

영화 ‘극한직업’이 새해 극장가에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27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극한직업’은 전날 하루에 99만5195명을 동원하며 역대 1월 최다 하루 관객 수 기록을 세웠다. 매출액 점유율은 75.7%에 달했다.

종전 기록은 ‘신과함께-죄와罰’이 지난해 1월 1일 세운 91만6652명이었다.

폭발적인 호응에 힘입어 ‘극한직업’은 개봉 나흘째 누적 200만명을 돌파했다. 역대 코미디 영화 흥행 1, 2위인 ‘7번방의 선물’과 ‘수상한 그녀’가 개봉 6일째 200만명을 돌파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이병헌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극한직업’은 마약반 형사들이 범죄조직을 잡기 위해 치킨집을 위장 창업했다가 전국 맛집



으로 소문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코믹수사극이다. 류승룡, 이하나, 진선규, 이동휘, 공명 등이 호흡을 맞췄다.

방탄소년단 서울 공연 실황을 담은 ‘러브 유셀프 인 서울’은 전날 개봉과 동시에 9만9623명을 불러모으며 박스오피스 2위로 출발했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공복자들 스페셜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 :죄와 벌(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MBC네트워크특선 <지쿠호 50년의 기록>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KBC특집 파워인터뷰 -정석용 전라남도교육감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를 행복아카데미	05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김신영의 TMI 언더나인(재) 50 MBC스포츠 2019 남북축구 친선교류전 <강원FC : 4.25, 중국 군영>	55 닥터 365
2	50 열린채널 광주(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40 공감다큐, 사람(재)	00 자동차부착식 위키 2 30 TV 유치원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꾸러기 식사교실(재) 55 5 MBC 뉴스	00 방학특선 다큐멘터리 정벽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큐멘터리 3일(재)	15 MBC플러스특선 대한외국인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우기	50 원소집이 아내	10 용왕님 보우하사 55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아리리다 30 생방송 TV로그 품지락
8	30 비켜라 운명(재)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최충우돌 전국 유망기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55 나이의 독립 영웅			
10	00 가요무대	00 양코르 KBS 드라마 스페셜 나의 흑역사 오답노트	00 나쁜형사	00 복수가 돌아왔다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0 안녕하세요	10 창사특집 UHD 다큐멘터리 <곰 1부>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스포츠특선	30 나이트 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띠띠뽀 띠띠뽀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9:00 몬카트
06:20 세계테마기행	13:00 다큐 오늘	19:30 EBS 뉴스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10 고양이들 부탁해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7:30 띠띠뽀 띠띠뽀	13:40 배워서 남줄(재)	20:40 세계테마기행 <겨울엔 네덜 트레킹 1부>
08:00 당동명 유치원1~2	14:30 몬카트(재)	21:30 한국기행 <겨울에는 울릉도 1부 >
08:3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50 EBS 다큐프라임 <맛의 배신 1부-건강을 부르는 향>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파프리카	22:45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09:00 뽀로로와 노래해요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3:55 배워서 남줄(재)
09:15 뽀로로와 노래해요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4:50 세계의 드라마
09:30 우리는 비트로스터	16:15 똑딱맨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10:30 한국기행(재)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15 마사와 곰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8일 (음 12월 23일 乙丑)

<p><b>子</b> 36년생 미분책은 두 번 일을 하게 한다. 48년생 진행하는 과정에서 폭이 넓어질 것이다. 60년생 행운의 기운이 길게 이어져 있다. 72년생 전혀 예상치 못한 형국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84년생 대안 마련이 시급한 국량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03, 11</p>	<p><b>午</b> 42년생 요령이 필요하다. 54년생 개별적으로 경중을 따져보아야 할 형편이다. 66년생 웃고 있지만 내면의 고통은 지울 길이 없을 것이다. 78년생 마음을 태우고 얘기하면 쉽게 합치하리라. 90년생 각양각색으로 천차만별하니 참으로 현란해졌다. 행운의 숫자 : 29, 60</p>
<p><b>丑</b> 37년생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느니라. 49년생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 법이다. 61년생 재물이 특별히 좋으니 재수 발원하여 보라. 73년생 판이란 사고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85년생 절제하지 않는다면 위험하다. 행운의 숫자 : 12, 64</p>	<p><b>未</b> 43년생 안타까운 입장에 놓여 있다. 55년생 포장을 잘한다면 가치를 높일 것이다. 67년생 아차하는 사이에 혼란의 소용돌이에 서 있을 수다. 79년생 열마나 오래 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과를 보느냐이다. 91년생 기회란 자주 오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49, 92</p>
<p><b>寅</b> 38년생 집착은 발목을 잡을 뿐이다. 50년생 길사로 연결되며 발전 된 양상을 띤다. 62년생 천우신조로써 대길하는 운세이다. 74년생 겉거리는 차치하고 핵심을 짚어야 할 때가 되었도다. 86년생 과거사에 얽매지 말고 새로운 계획과 설계를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38, 04</p>	<p><b>申</b> 44년생 결정적인 순간이니 주먹고 있어야겠다. 56년생 성취에 대비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요구된다. 68년생 한계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80년생 삼사일언하며 삼가지 않으면 재앙이 따를 수다. 92년생 자취를 뒤 돌아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97, 70</p>
<p><b>卯</b> 39년생 정황을 인식하고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51년생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 63년생 해결의 열쇠가 보일 것이다. 75년생 편견에 사로잡힌다면 오류를 범하기에 충분하다. 87년생 가능하다면 대세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18, 56,</p>	<p><b>酉</b> 45년생 끝없이 반복 될 뿐이다. 57년생 대단히 매끄럽게 풀려나가는 국세이다. 69년생 굳이 나설 필요까지는 없다. 81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낭패를 보게 될 수밖에 없으니 진중하게 임하라. 93년생 꼭 준수해야 발목을 잡지 않느니라. 행운의 숫자 : 54, 33</p>
<p><b>辰</b> 40년생 기본 소식이 메아리쳐 올 것이다. 52년생 간단하게 처리하자. 64년생 복잡다단한 국량이니 부지런히 행여야 제대로 돌아간다. 76년생 길사와 연결되는 행운이 따른다. 88년생 사리에 밝은 사람의 말에 따르는 것이 성사시킬 수 있는 길이다. 행운의 숫자 : 15, 89</p>	<p><b>戌</b> 34년생 방해자나 가벼운 장애물이 보인다. 46년생 경향이 달라질 것이다. 58년생 길한 여건이 조성 되어야 성과 거두는 법이다. 70년생 편익만을 도모하다보면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 82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소통할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06, 43</p>
<p><b>巳</b> 41년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다. 53년생 대부분의 대상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위력적이다. 65년생 주저하지 말고 꼭 행해야겠다. 77년생 똑같이 보아 왔다면 문제가 있다. 89년생 먼저 손을 쓴다면 성사 된다. 행운의 숫자 : 67, 21</p>	<p><b>亥</b> 35년생 검은 구름이 걷히고 있으니 곧 해가 떠오르리라. 47년생 합리적으로 안배해야만 만사가 흥통하리라. 59년생 대처해 나아가는 방식의 선택이 중요하다. 71년생 머지않아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다. 83년생 불필요한 걱정은 심신을 쇠잔케 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16, 37</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